

칼리토 카르발료사의 '대기실'
공간을 드로잉하다

8~12미터가 넘는 큰 나무들이 허공을 가로지르거나 서로 맞닿아 있다. 이것은 때론 빼떡하게 서 있기도 하면서 평면의 공간을 더욱 입체적으로 만든다. 이때 전시장은 곧 하나의 캔버스가 되고, 나무는 누군가가 그려낸 영감의 원천이다. 칼리토 카르발료사(Carlito Carvalhosa)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는 국제갤러리 3관에 들어서면 사람들은 그 압도적인 스케일과 온몸으로 느끼는 감각에 집중하게 된다.

에디터 | 정은주(ejjung@jungle.co.kr)
자료제공 | 국제갤러리



▶ Carlito Carvalhosa, Sala de espera (waiting room), 2013 (상파울로 현대미술관의 설치 장면)
old light posts, 500 x 2000 cm,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

그의 작품을 공간 드로잉이라 부르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. 상파울로 현대미술관에서 이미 설치가 된 작품이지만, 국제갤러리에서는 소재를 제외한 모든 부분- 공간을 구성하는 선이나 배치-이 달라졌다. 이 때문에 새로운 작품이라 봐도 무방하다. 공간에 대한 순간의 경험과 특정한 상황에 집중한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이다.



▶ Carlito Carvalhosa 전시 설치 전경, ©Keith Park

국제갤러리 3관은 전시장이 오로지 하얀 벽면으로 이뤄진 화이트 큐브다. 입체적이면서도 동시에 독립적이기 때문에 이 작품을 설치해 오로지 작품에 집중하기에는 최적의 공간으로 꼽힌다. 전시장 곳곳을 오가다 보면 보는 각도에 따른 다양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. 실제로 칼리토 카르발료사 역시 경계가 없고, 이상적일 정도로 무결점인 이 공간 안에 어떤 질서와 혹은 혼돈을 만드는 것에 흥미를 느꼈다고 한다.

전시장을 가로지르는 나무는 브라질에서 전신주로서 수명을 다한 것들이다. 칼리토 카르발료사는 전시장 안에서, 기존과는 다른 맥락으로 사회와 소통하는 과정을 그려내고자 했다. 그 속에서 그려진 그의 드로잉은 하나의 그림이자 인식의 결과로 읽히게 될 것이다. 전시는 11월 12일까지 계속된다.

국제갤러리: <http://www.kukje.org/>